

제55호

2013 + OCTOBER

제264회 임시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청남도의회 소식

본 회 의
의원동정
의원논단
5분발언
주요안건처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연구모임 · 토론회
포토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이연슬

| 한 용 운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슬퍼 말고
잠시라도 같이 있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더 좋아해 주지 않음을 노여워 말고
이 만큼 좋아해 주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 애태운다고 원망 말고 애처롭기까지 한
사랑이라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그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일찍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OCTOBER 2013 제55호 제264회 임시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청남도의회 소식

CONTENTS

02 제264회 임시회 개회사



24 상임위원회



04 본회의

06 의원동정

08 의원논단

18 5분발언

22 주요안건처리

30 특별위원회

32 연구모임 · 토론회

38 포토의정

42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궁금했어요



| 발 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편 집 |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담당

| 전 화 | 041)635-5102

| 팩 스 | 041)635-5009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디자인 · 제작 | (주)가야인쇄기획 041)667-6400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민생현장 방문과 의정토론회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국2위의 무역수지흑자를 유지하는 등 활발한 기업경제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학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취미 활동과 학력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선의 선생님과 교육행정에 매진한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13 을지연습」 훈련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경과 유관기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도민들을 힘들게 하였고 가슴 아프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37, 8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에 탈진 환자가 속출하였고 축산농가의 폭염피해를 가져왔으며, 지속되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양식 물고기의 폐사와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들에게도 큰 시름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최악의 전력난으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여름의 이상기온을 교훈 삼아 폭염속 건강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수칙 홍보와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그리고 바닷물 온도 상승에 따른 어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온 국민의 절전 노력으로 최악의 위기는 모면하였습지만,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 마련과 함께 자체적으로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과 비상시 대응 매뉴얼 정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7.18일 태안 앞바다에서는, 해병대 캠프 훈련도중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동량인 우리지역 수재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사건현장에서 폭염과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관 모두에게 충청도의회 41명 의원 이름으로 수고 많이 하었다는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특히, 정문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19 구조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 보다 길고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처서가 지나면서 농촌 들녘엔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본격적으로 수확기에 들어가기 전에 농기계 정비 순회서비스와 부족한 농촌 일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리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가을 걷이 어려움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불과 20여일 남짓 남겨 두고 있습니다. 훈훈하고 흐뭇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가 없는지 둘러보시고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도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현실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청취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누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쯏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남은 하반기 의정활동도 힘차게 펼쳐 주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27.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 준 우

“충청남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운영”

충청남도의원들, 도정현안 예리하게 파헤쳐 집행부 곤혹

충청남도의회 제264회 임시회가 지난 8. 27일 부터 9. 5일까지 10일간 5개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등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임시회는 도청, 교육청, 유관기관 등 총 60개 기관·부서의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고 상임위원회별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6곳의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주요 성과로는 충청권 SOC 공약사업 이행촉구,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방사능 식품 안전 조례제정 촉구 등 12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고 도청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6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5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추궁하며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상임위원회별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형 행정혁신을 위해 회의 문화개선과 내포시대 도정 비전 제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재정 확충방안과 기업을 활용한 도정 홍보의 문제점, 과학적 감사기법 도입을 주장했으며 공무원의 무책임 회피주의를 경고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도내 위인과 장인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황새마을조성사업 등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또한 「의료원」을 「도립병원」으로 명칭변경을 제안하고 경영정상화 당부와 함께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여성 및 다문화 복지정책에 대한 주문과 함께 청소년 안전대책을 추궁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3농 혁신 관련 5개 사업단 18개 T/F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주문했고 고령화·다문화 대응 농정개발 및 통합 마케팅, 산지유통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3농 혁신 5대 역점과제 추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개발 보급은 농업기술원의 창의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격려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권 SOC 공약사업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충남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과 국비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고품격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 변화에 맞춰 학교의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교육기관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학교평가의 폐단과 급연교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운동장에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하고 학생비만 탈출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밖에 도내 이슈가 되고 있는 6곳의 주요 사업장 및 시설을 방문하고 그동안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안을 심도 있게 밝혀 대책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등 활발한 현장의정도 함께 병행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충청남도의회가 현장의정, 연구모임, 토론회 등 역량강화를 통해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 의지를 도민의 대변자로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의정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모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과 게을리 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며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 나가는 예방행정을 펼쳐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준우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의원들 모두는 210만 도민의 소중한 뜻을 깊이 새겨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변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하며 공부하는 의원상을 도민여러분께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의원동정



윤미숙 의원, 천안의료원 1일 명예원장



윤미숙 의원(천안)은 지난 8월 12일 천안의료원 1일 명예원장으로 위촉돼 하루동안 원장 임무를 수행했다. 이날 윤미숙 명예원장은 외래진료과와 병동을 방문해 의료진과 환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과 어려운 상황들을 직접 체험해 보니 공공의료 발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천안의료원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와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를 나눴다.

장기승 위원장, 홍성의료원 1일 명예원장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지난 8월 13일 홍성의료원 1일 명예원장에 위촉됐다. 이날 장기승 위원장은 병원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명예원장 업무를 시작했다. 외래 진료과와 병동을 순회하며 환자들에게 쾌차를 비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노인전문 병원 병동에 방문해 직접 환자들의 식사를 돕고 병원 각 부서를 돌아보았으며, “직접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심에 서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주는 일을 몸소 체험해서 뜻 깊었다”며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형달 의원, 경제통상학 박사학위 취득



서형달 의원(서천)은 지난 8월 20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한국-ASEAN FTA가 한국교역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경제통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연구에서 서형달 의원은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한국의 경제영토는 상위권으로 격상하였으나, 농업분야가 취약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보상기금을 만드는 적절한 보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농업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산업으로 도시와 농촌 공동체의 결합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도록 정부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찬중 의원, 홍성의료원 1일 명예원장



박찬중 의원(금산)은 지난 8월 21일 홍성의료원 1일 명예원장을 수행했다. 이날 박찬중 의원은 의료원 관계자로 일일업무를 보고받고 직원들과 속깊은 대화를 나눴다. 또 외래 진료과와 병동을 순회하며 환자들에게 쾌유를 비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심혈관센터와 산후조리원, 직장어린이집, 지하주차장 건설현장 등 의료원 시설과 현안 사업들을 직접 둘러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료 현장을 직접 둘러봄으로써 의료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할 나위 없는 한가위가 되려면 !



이 준 우 의장
충 청 남 도 의 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표현하는 말로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현은 없을 듯싶다.

추석은 잘 알다시피 신라 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그 풍습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고유한 명절로 인식된다.

추수에 대한 감사와 음식을 나누며 가무(歌舞)와 함께 각종 놀이가 곁들여 지는 농경사회 풍습이, 압축성장의 혜택으로 불과 몇년 사이 스마트폰 속의 화면으로 명절 풍습을 검색하고 신기해 할 정도로 우리사회는 정말 상전벽해(桑田碧海) 했다. 그렇더라도 한가위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이맘때가 오면 마음이 넉넉해 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들...

**민족의 대이동, 성묘, 벌초, 차례상, 선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분 좋은 추석

명절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린시절에는 추석빔을 기다리며 마냥 좋아라 했지만 세상은 단순하지 않은 얹으니 문제인 것이다. 준비한 만큼 대처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니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살펴 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민족의 대이동’으로 일컬어지는 엄청난 교통량에 대한 대처이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추석명절에 통상 교통량이 최고점을 찍는다. 2012년 추석명절기간 이동인구는 2,915만 명이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인원이다. 매년 발표되는 교통종합대책이겠지만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기대해 본다.

한편, 다행히도 올 추석은 긴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교통량 소화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추석명절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올 여름은 긴 장마, 폭염 등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 크고 추석 성수기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안정적 물가관리에 대한 지혜가 요구된다.

특히, 이상기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올 추석명절 선물은 전통시장에서 우리지역 특산물을 준비하자고 제안해 본다.

셋째로, 즐거운 추석명절 ‘안전’하게 보내기이다.

고향가는 길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차량 점검, 빈집 관리, 벌초시 안전사고 예방, 음주사고 방지 등 안전에 대한 주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로,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을 보내자는 것이다. 우리 도내에는 8,500여개의 각종 사회복지 시설, 57,327명의 기초생활수급자, 81,230명의 독거 노인, 16명의 소년소녀가정아동, 585명의 가정위탁 아동, 655명의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이 있다. 자칫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진정 풍성한 추석명절을 완성할 수 있다. 함께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인정(人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덕담 한마디씩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교통난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민족이다. 추석명절의 이동은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삶과 문화와 정치 담론까지 대이동한다. 부모님을 뵙고 고향 주민들도 만나고 각종 모임에도 참석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며 소통의 장을 한판 벌일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추석명절에 어울리는 좋은 덕담 한마디씩 준비를 해 보자는 것이다. 진정한 훈훈한 명절 준비는 일단 이것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소중한 가정에 대하여 뒤돌아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길 권한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2012년 기준 25.3%로 전체가구 유형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는 핵가족화가 매우 심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추석명절은 단절될 수 있는 가족과 세대를 이어 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자신들의 뿌리인 가정사(家庭史)도 알아보고 덕담 한마디씩 건넨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올 한가위 보름에는 우리 선조들께서 언제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을 바랐던 마음처럼 모든 모두가 항상 넉넉하고 풍성한 나날 보내기를 소원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희망을



김 장 옥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요즘, 청소년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문제점 등이 자주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되고 있다.

용어가 생소하지만, 교육 과학부에서는 2002년부터 중도탈락자, 학교 중퇴자, 등교 거부자, 탈학교·학생 등 다양하게 사용해 오던 용어를 통합 지칭하여 ‘학업중단’ 이

라고 사용하고 있다.

주변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할 때면, 본인과 보호자들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못한 청소년들이

제도권의 보호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여겨진다.

최근 10년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2~3천 명이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학업중단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학력부족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는 자립의 기회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국가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과다지원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 인터넷 중독, 비행, 가출 등으로 이어져 사회병폐 현상을 부추기기도 하므로 더욱 제도권의 관심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학업중단 문제는 책임의 소재를 떠나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두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만 된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부정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업중단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련 부처 간의 협업과 독립법안의 제정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부모에게만 책임

지게 할 수만은 없다. 보다 범시민적인 참여 유도과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재)충청남도청소년 진흥원에서 하는 1234운동이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1234운동은 '일촌의 마음으로 이모 되고 삼촌 되어 청소년을 사랑하자!'라는 의미이다. 3자가 아닌 가족으로서 청소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전국의 상담복지센터에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제도권 교육 이탈방지를 위해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고 성장기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업중단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탈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권 교육의 발 빠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도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아야 한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학생의 재능을 찾고 관련 분야의 학업 능력을 신장시켜주어야 하며, 인성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청도민이 한마음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개발 과정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사랑 실천을 구체화해 나아갈 것을 기대해 본다.

한중 FTA 체결로 바라보는 우리 농업의 현재



이종현 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필두로 현재 총 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45개 국가와 FTA를 발효 중에 있다.

FTA는 국가간의 관세를 철폐하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이런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이 공존하며, 국가간에도 서로의 이익과 손해를 감수 하면서도 FTA를 체결하려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협상진행 중인 FTA는 6건 16개국이며, 지난 7월 2일 부산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6차 협상에 들어갔다.

부산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 경우 개방수준, 민감·초민감·일반 품목의 비중 등 협상지침(모달리티 : Modality)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 품목을 일반 품목(10년 이내 관세 철폐), 민감품목(10년 이후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관세 인하 대상서 제외)으로 나누고 그 비중을 정하는 단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들, 중국은 공산품을 대거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에 포함하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다. 특히 중국은 토지, 기후, 노동력 등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국 내 반발을 우려해 공산품 개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일정 부분 수용, 공산품의 민간품목 지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국내 농·수·축산업은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훨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농·수산물 관세가 높은 편인데도 중국산은 이미 싼 가격과 엄청난 물량으로 한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농축산물 분야에서 29조원 어치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농민단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및 농업인의 고령화로 생산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이상기온 현상으로 한파, 수해, 여름철 고온과 가뭄 등으로 매년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가가치 없는 일반농산물 생산과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FTA가 타결되면 농·어업생산 활동 위축과 이에 따른 도산 농가 속출 등 농촌경제의 빈곤의 악순환이 심각한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한 곡물 수확량 감소로 곡물수입이 늘어나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비상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1년 현재 44.5%까지 하락하는 등 식량안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및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 확대 등

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하며, 수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수급량도 조절하여야 한다.

또한, FTA체결로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개방에 취약한 농수축산물 산업과 노동력을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해외 식량 조달을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으나 농민들에게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민도 살고, 국민도 식량 자급 및 신토불이로 먹거리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귀농·귀촌 꿈을 이룰 수 있는!



김홍열 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후 1955~1963년에 태어난 거대 인구집단으로서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화시대를 이끈 주역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고 경쟁력을 갖춰 석유파동이나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 수차례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70~80% 대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고용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들은 인간의 자연 회귀 본능에 의한 전원생활을 통해 다양한 삶을 추구

하고, 정년 없는 직장의 매력으로 인한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다.

농업기술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 시·군별 귀농·귀촌 현황을 살펴보면 '12년 충남 귀농 1,214가구 2,112명(전국 11,220가구의 10.8%)으로 2011년 1,110가구보다 9.4% 증가했으며, 귀촌은 319가구 672명(전국 15,788가구의 2.0%)으로 일부 감소한 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귀농·귀촌은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IMF직후의 귀농·귀촌과는 달리 다양한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추세로 농촌생활 선호, 본격적인 농사, 은퇴 후 여가생활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노동력의 감소, 재정건전성 악화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충족하지 못한 자산 등 노후대비 부족으로 고령빈곤층으로 전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대중문화의 유입과 진화, 경제·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뉴 시니어는 소비시장에서 뉴 시니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귀농·귀촌은 1인당 169만원의 사회적편익을 창출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 등 농어촌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귀농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도 귀농·귀촌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부터 농지·주택 구입자금 융자, 교육, 정보 제공 등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사례는 일부에 불과하고 경제적인 불안정, 지역정보의 부족, 영농경험 불충분 등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어 정책보완을 통해 안정

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처음 귀농을 준비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작물의 재배기술 부족도 문제이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마을주민들과 거리를 좁혀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착에 문제가 되는 체계적인 귀농·귀촌교육, 지역내 소통 및 갈등해소기구 마련, 생계형 귀농의 경제적인 어려움, 농지구입 및 임대문제, 주거지 확보문제, 맞춤형 귀농·귀촌지 선정,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소득원 선정, 행정지원 및 정부지원관련 서류, 농한기 취업문제, 지역의 냉대와 편견, 농촌 사회 적응상 고민해결의 어려움, 건강 및 노후생활 문제, 귀농·귀촌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귀농·귀촌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으로 노년의 삶이 안정적이고,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인심 좋은 농어촌에서 잘살 수 있고, 멋지게 뿌리 내리길 바란다.

예산·홍성 통합! 그 상생의 길은?



고 남 종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2009년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일방적인 정부에 대한 통합건의에 이어, 2012년 6월 개편위가 '예산+홍성'을 도청이전 지역으로 통합이 불가피하며 통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된 논의는, 도청이전을 마무리

한 시점인 2013년 1월까지도 제기된 홍성지역의 성급한 통합의 주장은 양 지역 갈등의 골을 심화시켰다.

그동안 글쓴이는 의정활동을 통해 개편위의 강제적이고,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졸속적 통합을 반대하면서, '통합시 시청사 위치를 도청신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산군에 설치하는 제안을 홍성군민이 수용해 준다면 9만 예산군민을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통합에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시 청사의 위치를 예산수덕새C 인근으로 정한다면 예산군민은 물론 홍성군민도 접근성 차원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군과 홍성군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형태, 역사, 문화 등 고유의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각각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형성, 발전해 왔다. 예산과 홍성 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선행되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시점에서 통합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양 지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이 통합만이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 지역 간의 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고, 특정 서비스 구역에 맞게 특별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기존의 자치단체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이런 노력 없이 통합부터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통합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윈(win)-윈(win)게임이 아니라,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의 제로섬(zero-sum) 게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의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관 주도 통합추진은 전주시·완주군과 마산·진해·창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합과 통합은 없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발전은 커녕 주민 갈등만 커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2010. 7. 정부주도로 출범된 통합 창원시의 통합신청사 건립과 예산 편성 등 지역간 갈등이 첨예한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의 효과가 미미한 현실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적·정략적 통합의 결과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이다.

예산군 지역은 당초 도청이전으로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높은 기대감에서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다.

원도심의 공동화는 차치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도 제외되고, 가시적으로 홍성군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내포신도시에 예산군은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밀바닥 정서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전 개편위의 일방적인 '예산+홍성' 통합의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0년 내포신도시에 10만여 인구가 조성되고, 새로운 발전축으로 확산되어 갈 때 예산·홍성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30만 주민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여러 상황을 보아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7~8월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명칭과 기능이 개편위와는 다르며, 이전 개편위에서 채택한 것을 연장할 것인지, 새로운 틀을 짤 것인지는 새로이 구성되는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양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지역정서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자율적 통합 방식을 기대해 본다.

당신은 제노비스를 구하시겠습니까?



김득웅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불안정한 고용이 보편화되면서 가족 해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결핍으로 증폭되는 가정불화, 좌절·무력감으로 인한 우울증, 이혼 등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대로 자녀에게 투사되기 쉽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고립은 아동을 도울 친척이나 친구가 없도록 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친부모의 아동학대가 79.7%였으며, 경찰에 의한 아동학대의 단속과 처벌이 1%에 불과했다는 가슴 아픈 통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일격을 가한다. 특히 주양육자인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장기간 가정 내에서 은폐되기 쉽고, 피해아동이 신체와 정신에 심한 손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서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의 의식주를 적절히 돌보지 않는 물리적 방임,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등의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진료를 소홀히 하는 의료적 방임 역시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지만, 이를 친부모의 소관이라 여기는 사회적 통념은 제노비스 신드롬을 일으킨다.

이는 1964년, 제노비스가 구타당하다 결국 살해

되는 것을 30여분 동안 목격한 38명의 이웃들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이름 붙여졌다. 목격자가 많을수록 반대로 책임감이 분산돼 돕지 않고, 방관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한번쯤 누구나 지나치게 자주 체벌 받거나, 방임되어서 점점 움츠러들고 있는 아동을 주변에서 접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누구나 단지 동정심이나 불편한 감정만 느끼고 외면했을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누가 보살피든 친부모만 하겠냐’는 혈연중심주의의 지독한 편견의 감옥에 아동을 가둬 두고,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까지 감당하게 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준다. 작년 중앙일보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외도·학대·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을 경험한 강력범죄자는 66.7%에 달하였다. 이처럼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미래의 가해자로 변질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므로, 학대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도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신고인의 비밀을 보장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세워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교사와 학원강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학대 아동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사례를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의심만 되더라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우리 도는 시급히 아동복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아동 전담 치유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영아방임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위탁가정보호를 활성화하며, 학대발생 후 현장조사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단체들도 많지만, 민간에 위탁한 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속담이 있다. 이혼이나 실직,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아동을 적절히 돌보기 어렵다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운을 얻을 동안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보호한다면 좋지 않을까. 방관자가 되어 한 아이의 빛이 사그라들 때까지 외면한다면 우리는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제노비스를 구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이 중 화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핵가족화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

이 심화되고 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및 자살문제가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보다 농촌의 독거노인들이 더욱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노령연금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활보조금, 작게나마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은 치솟는 물가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찾아서 하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인가구의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증가해 일자리 확대 없이는 편안한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도 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43만 명이며, 이중 49.2%인 21만 명이 취업을 하였다.

그러나 현 65세 이상 노인 고용율을 살펴보면 2002년 30.5%에서 2012년 30.1%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할 수 없으신 어르신들이 충청남도에는 50.8%나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첫째, 2002년부터 10년간 노인 일자리량은 총 62만개 증가하였으나 정부고용 일자리를 제외한 순수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약 4.3%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민간고용시장의 노인일자리가 타 업종 대비 저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중심의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

셋째, 정부고용시장의 일자리 중 민간고용시장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시장형 사업일자리의 고용창출력이 취약하고, 임금수준도 월 20만 원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

넷째,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연령제한으로 인해 민간이나 정부 고용시장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들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민연금의 경우 근무시간제한으로 인해 정부 고용시장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은 지역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보다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장년이나 청년보다 더 취약하다는 점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들이 쑥쑥 늘어나는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강남구청과 함께 시장자립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실버카페 싱그로브'를 설립하였다.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영세성을 극복하기 어려웠으나 '실버카페 싱그로브'는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체로 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노인 고용 업체가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이 형성된다.

우리 도에서도 근로자의 대부분을 고령자로 채용하는 '실버카페 싱그로브'를 만들면 사업장 한 곳당 30여명의 노인을 고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차별화됨으로써 지점 추가 개소 시 많은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사회간접자본(SOC)이 곧 복지다



유 병 기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우리나라 고용률은 10년 동안 64%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낮은 고용률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내수 시장과 경제의 활력을 침체 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복지는 성격상 현금을 나눠주는 시혜적 차원의 '소모적 복지'와 '가치창조적 복지'로 구분된다.

'가치창조적 복지'는 교육복지의 의미를 핵심에 담아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성장이라는 훌륭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적복지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역시 다목적이고 가치창조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복지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 수)는 12.1명으로 제조업의 6.7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순환속도가 빠르고 전후방 연관 산업도 아주 많아 경제회복의 역할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여주고 도시와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시켜 준다.

셋째,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정부는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4년간 SOC 예산 11조60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재정투자가 급격히 줄어들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재정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토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작용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SOC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재화가 아니고 장기간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최근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SOC투자가 불려올 전방위 효과에 주목하고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SOC에 대한 투자에 눈을 돌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역주행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내포로 이전한 우리도(道)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우려가 크다. 정부가 세금은 더 걷지 않으면서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어 SOC까지 재원을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수년째 붕괴위기에 처한 건설경기 of 조속한 회복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내수시장과 경제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4년도 SOC예산을 대폭 세워야 할 것이다.

5분발언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3. 8. 27)



고 남 중 의원
| 예산 |

충청권 SOC사업 공약이행 촉구

충청권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사업중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되거나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업에 대해 공약이행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 집행부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서해안 복선전철사업, 충청내륙 고속도로 등 현안사업이 미온적이거나 미반영됐다. 선진국에 비해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경기활성화를 통해 서민일자리 창출을 이뤄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충청권 SOC사업에 관한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병 국 의원
| 천안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필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적 문제점과 여건을 고려한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걸맞은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통합적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원확보와 지원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건축주·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취득세율 감면정책 적극 대응 시급

중앙정부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하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충청남도의 경우 올해 총 지방세 예산액 1조 900억원 중 취득세 예산액이 5,830억원으로 53.4%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세원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철저히 외면하고 현실적인 대책 없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정책을 반대하고 전국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 도 규 의원
| 서산 |

충남의 위인 사회문화적 위상 강화

충남의 역사문화 뿌리를 찾아 충남을 빛낸 위인 100명을 선정하여 재조명함으로써 현대와 과거 세대의 교감을 해야 한다. 살아있는 역사교육은 물론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도록 충남을 빛낸 청백리와 충신, 독립열사들을 발굴해 그 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 개최를 비롯해 인물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충남인물사전과 같은 후속사업은 물론 박물관 건립사업, 역사문화인물 콘텐츠 개발 등도 고민해야 한다.



김 득 응 의원
| 천안 |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마련 절실

해양쓰레기로 도서의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는 어민들 생존권의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관리하는 무인도서지역은 239개소로 전국 2,876개의 8.2%이고 전남(1,744개), 경남(484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무인도서를 관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서 시장·군수의 업무로 분류되어 처리비용의 20%를 보조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동결(1억 5000만원)되어 원활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예산지원 등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유 기 복 의원
| 홍성 |

노인 일자리문제 해결대책 마련 강조

핵가족화와 더불어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은 임금 수준도 20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하며 업종도 단순노동 중심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이 공동으로 30여명의 노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실버가페 싱그로브"를 만들었다. 도가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노인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물적·인적 자원과 노인고용업체 설립 등의 기반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중 화 의원
| 홍성 |

5분발언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9. 5)



김 지 철 의원
| 교육 |

학교 급식 방사능 측정 의무화 시급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방사능 물질 검사 장비 확보와 연2회 검사를 비롯해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감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또 이에 관한 정보공개 등도 이뤄져야 한다.



김 용 필 의원
| 비례 |

충남 관광사업 내포문화 개발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미진하다. 겨우 가야산순환 도로 9.6km와 간월도 관광도로 구조물설치 등 일부 토목공사만 진행됐다. 게다가 정부는 사업을 변경해 2020년까지 하겠다며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해 지면서 많은 문화재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역사 문화적 검증 없이 진행되는 개발로 가야산 일대는 훼손되고 있다. 전문가의 고증을 통한 멋진 내포 문화권 개발을 이뤄 고부가가치의 관광충남을 만들어야 한다.

도교육청 수의계약 제도 개선 촉구

서민경제가 호전될 기미가 없다. 이러한 불경기에 공공기관이 할수 있는 일은 수의계약 활성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 시 수의계약 한도액을 500만원까지 낮춰서 적용하고, 전자입찰 실적을 학교청렴도 평가에 까지 포함해 수의계약 대상을 전자입찰로 유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규모 영세업체 등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영세 상인이 희망을 가질수 있게 도내 업체로 계약 상대를 확대하는 수의계약 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



명 성 철 의원
| 보령 |

3농·행정혁신 충남정신 틀 속에서

내 부모를 모실 수 없고 요양시설 등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효' 문화 확산 사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충효·절의·선비·예의·개척 등 충남 5대 정신 함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정신을 빼놓고 3농혁신, 행정혁신, 지방분권 추진은 의미가 없다. 충남 5대 정신이 해결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의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 충남정신발양운동을 통해 충효사상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도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김 정 숙 의원
| 비례 |

유류피해 대책 대통령이 나서야

지난 7월 박수현 국회의원 등이 이견희 회장을 찾아 갔으나, 삼성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 회장은 물론 임원 한명 나오지 않았다. 지난 2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기업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견희 회장도 배석했다. 혹시나 했지만,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다. 국회 특위 활동이 이달 말까지로 시간이 없다. 이제는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할때다.



맹 정 호 의원
| 서산 |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절실

가축분뇨와 폐수, 생활쓰레기 등의 악취로 주민들의 고통을 겪고 있다. 악취의 대표적 원인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공장의 산업폐수,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충남도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하루 약 1559만 리터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도는 악취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 길 행 의원
| 공주 |



제264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총 27건 : 제정안 4건, 개정안 20건, 폐지안 2건, 결의안 1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안 전문은 충청남도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정활동 → 의안)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1.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발 의 자 | 김홍열(대표), 고남중, 김득응, 송덕빈, 이종화, 이종현, 조길행, 조이환 의원(찬성 : 이도규 의원 외 13인)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주요내용 |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규모화·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사업결정 등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발 의 자 | 김석곤(대표), 이은철, 조남권, 이기철, 이진환, 김지철, 명노희, 서형달 의원(찬성 : 윤석우 의원 외 8인)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주요내용 | 충청남도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적용범위 명시, 학교 등의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 및 조치사항 명시, 석면건축물 조사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확보 및 예산 편성.

3.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주요내용 | 도립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 규정,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입·퇴소, 전문기관·단체 위탁(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등 운영기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심의위원회(9명 이내) 구성.

4.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주요내용 | 지역 자율방재단 상호 교류 및 현안 협의를 위한 연합회 운영조례임.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기능·구성, 임원 선출·임기 및 해임, 회의운영 등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결의안

1. 군산항 북측도류제 풍력단지조성 사업예정지 변경 촉구 결의안

| 발 의 자 | 조이환(대표), 서형달 의원(찬성 : 김지철 의원 외 11인)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금강하구에서 벌어지는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행위 반대, 정부는 금강하구와 서해안을 살리기 위한 “금강하구 보전·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해수유통을 위한 대체용수 확보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예산의 조속한 지원 요구, 정부와 전라북도는 환경을 악화시키는 군산 “해상도시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군산항 북측도류제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예정지를 변경할 것을 촉구.

그 밖의 처리안건

-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교육감/원안가결)
-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맹정호 의원 발의, 김용필 의원 외 9인 찬성/원안가결)
-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농어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수리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원안가결)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소개



유병국 위원장



조길행 부위원장



조치연 의원



권처원 의원



김용필 의원



김홍열 의원



맹정호 의원



윤미숙 의원



조남권 의원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회사무처)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국)**는 제264회 임시회 첫날인 8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주도적으로 현행 자치법규 361건을 전수 조사하여 74건의 개정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민 등 도민 모두의 이익이 되는 국회입법, 타 시도의 우수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 안전자치행정국 등 업무 점검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시급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충청남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열고 도 안전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 홍보협력관실, 공무원교육원 등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안 점검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안전자치행정국 업무와 관련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한 세율인상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수보전 대책을 강조했다.

기획관리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내 각종 사회단체의 중복 회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통계자료 DB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 현안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비리가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한 과학적 감사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홍보협력관실 업무와 관련 충남도내 서남권지역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또한, 태안군 가의도 도서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방파제시설 사업 현황과 자연생태공간조성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앞으로 태풍·호우 등의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도서지역 개발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소개



유병돈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강철민 의원



김홍장 의원



김용필 의원



김정숙 의원



김종문 의원



명성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소개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부위원장



박찬중 의원



윤석우 의원



유익환 의원



조치연 의원



김장옥 의원



이도규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등 업무 점검

황새마을 조성사업 투자 예산낭비, 재검토 촉구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 환경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실, 도내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등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와 관련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예산군 광시면 일원에 황새종의 복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90억원을 지원하고, 환경복지국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여 중복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국 소관 조례 20건중 40%에 해당하는 8건이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도내 4개 의료원 업무에 관해는 성과급제 추진과 ‘의료원’ 명칭을 ‘도립 병원’으로 개칭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는 인터넷 중독 대책 등 청소년 정책제도 미흡과 여성 일자리지원 확충 등을 주문했다.

또한, 서천 국립생태원과 서천 한산모시관 현장을 방문하여 국립생태원과 충남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한산모시의 세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 해양수산국 등 업무 점검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 시급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제264회 임시회를 통해 도 농정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농정국 업무 보고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은 “3농 혁신사업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크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롭게 출범한 해양수산국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신설된 해양수산국의 출범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원 업무 보고에 관해서는 “충남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농 혁신 5대 역점과제 추진과, FTA 대응 선진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주요 사업에 성과를 내려 노력했다”고 격려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등 문제점을 제시하며 “농업정책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 방문하여 중부권 최대 농산물 유통 단지 거점확보, 연계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소개



이종현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



고남종 의원



송덕빈 의원



김득응 의원



이종화 의원



조길행 의원



조이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소개



박문화 위원장



권처원 부위원장



유병기 의원



김기영 의원



김문권 의원



유기복 의원



유병국 의원



이광열 의원

■ 건설교통국 등 업무 점검

국토 균형관리와 친환경 공간조성 노력 강조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도 건설교통국과 종합건설사업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방본부 등의 소관에 대한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건설교통국 업무 보고와 관련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균형적 국토 관리와 친환경 공간조성 노력을 촉구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생활공간과 거리환경 등 세부적인 계획을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현안에 대해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비 확보 및 종합병원, 대학교 등 유치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친환경 하천정비 등을 추진할 것과 구레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처리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주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한 뒤 공주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위원회

도 및 시·군 교육청 등 업무 점검

금연교육 실효성 및 공문서 외래어 남발 질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도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외봉사활동 현황에 대해 묻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연교육의 실효성이 없어 흡연율이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지역 교육청 업무와 관련 외래어 사용을 질타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한글의 사용과 사랑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에서 각종 주요사업 및 공문서 작성시 무분별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말 가꾸기 운동에 역행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지역 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도내 학교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의원 소개



이은철 위원장



조남권 부위원장



김석곤 의원



이기철 의원



이진환 의원



김지철 의원



명노희 의원



서형달 의원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의원 소개



유기복 위원장



김용필 부위원장



김기영 의원



강철민 의원



고남종 의원



김홍장 의원



권처원 의원



김장옥 의원



명성철 의원



이종화 의원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총체적 점검 나서
“도청이전특별법 적극 대응 등, 국비 예산 확보 촉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복)**는 9월 4일 회의를 개최하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로부터 신도시 건설 조성상황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심도있는 보고를 받았다.

특별위원회는 “충남도청이 성공적인 이전을 마쳤지만, 여전히 기관·단체 이전을 비롯한 주택, 학교, 병원, 주민편의시설 등 초기 생활권 중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며,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Putrajaya)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등 외국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임기응변식 도시구조 현상을 지적하고, 조경면적 등 우수 사례를 직접보고 고찰하여 명품신도시를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비확보와 주요사항이 반영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내공동주택이 홍성에 비하여 예산에 적은 비율로 조성됨을 지적하고 주택공급사업의 예산, 홍성 지역에 균형있는 사업추진을 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내포신도시 건설에 현재까지 국비 확보 및 사용내역을 자료요구 하면서, 신도시 주진입로 공사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 터널공사 중인 지역을 우회하여 우선 부분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아침 출근시간 홍성에서 도청 진입시 차량정체가 현재보다 심해질 것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및 신도시 내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점검·수정 할 것을 주문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유류피해민 지원상황 점검
“삼성의 현실적 보상,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국비확보 촉구”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는 9월 5일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서 ‘해양수산업’으로 조직 개편 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해양수산업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유류피해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특별위원회는 “서해안유류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허베이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 되었으나 아직도 삼성측에서는 피해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삼성에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으며, 피해지역대책위원회를 “1개 시·군이 단일단체로 되어 있어야 지원되는 만큼 현재 삼성과 국회에 힘을 모아 대화 해야 하는 시점에서 분열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용역이 10월 말까지인데 道에서 용역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류피해본부가 과로 축소되어 업무가 축소된 것으로 오인하는 도민 들도 있는데, 유류피해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T/F팀을 만들어 서라도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 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의원 소개



명성철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강철민 의원



김홍장 의원



유익환 의원



이중현 의원



서형달 의원



유기복 의원



이도규 의원



이중화 의원



조이환 의원

연구모임 · 토론회

| 복지정책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 |

| 참석자(8명) |

구분	성명	소속
좌장	이재완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2	박예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간사
토론	김장옥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응주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나백주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박남신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담당

충청남도 복지정책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

“전국 최고 노인 자살률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충청남도의회 김장옥 의원(비례)은 7월 23일 충남북부 상공 회의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복지정책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의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충남도 역할”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박예림 간사의 “복지지표 비교를 통한 충청남도 복지 정책 현황과 과제”가 각각 발표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비례),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동호 교수,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조응주 정책위원장, 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박남신 노인복지담당 등 다섯명의 관계자가 모여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김장옥 의원(비례)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복지예산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고 전국 최고인 노인 자살률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하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기능지구 활성화 정책토론회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절실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8월 13일 충남테크노파크 대강당(천안)에서 개최됐다. 충청남도 의회가 주최하고 김문권 의원(천안)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영노 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의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의 활성화 방안'과 김문권 의원(천안)의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 연착륙 전략'이 발제됐다. 이어 배병성 호서대 교수, 김현철 충남도 전략산업과장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문권 의원(천안)은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동시에 개발하고, 기능지구별로 연구단을 최소 1개씩은 반드시 배정하기를 바란다”며 “과학벨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매니페스토 시민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 참석자(7명) |

구분	성명	소속
사회자	유병국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좌장	장원철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주제발표	전영노	충남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토론자	김문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김현철	충청남도 전략산업과장
	배병성	호서대학교 교수
	조석진	주식회사 피토(FITO)



연구모임 · 토론회

|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

| 구성원(11명) |

구분	성명	소속
대표	김중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간사	임춘근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회원	김홍장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김득응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김지철	교육위원회 의원
	하태현	공인노무사
	진영하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
	전말봉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충남지부 조직국장
	이상문	청양군 비정규직 대표
	민지현	학교비정규직 충남영양사 대표

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현되나”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 보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 예정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대표 김중문 의원)**은 9월 7일과 10일 예산문화원에서 충청남도·시군, 충남교육청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중문 의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토론회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향후 고용개선 대책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적제도를 장치가 필요하다는,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시니어클럽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시니어클럽 개소당 운영보조금 지원액
충남 전국 최하위 심각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대표 이도규 의원)**이 9월 5일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시니어클럽 관계자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시니어클럽과 부여군 시니어클럽 관계자가 참여하여 시니어클럽 현황과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충남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연구모임 대표 **이도규 의원(서산)**은 타 시도에서는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데 충남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충남 시니어클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은 지난 6월, 최종 연구주제를 충남 시니어클럽 활성화 방안 연구로 결정한 바 있다.

|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

| 구성원(9명) |

구분	성명	소속
대표	이도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회원	김장옥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조치연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유익환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윤미숙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김영운	천안시 노인복지관 관장
	박상규	아산시 시니어클럽 관장
	신기원	신성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최은희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모임 · 토론회

| 온양행궁복원을 위해 주민대상 의정토론회 |

| 참석자(8명) |

구분	성명	소속
좌장	정진경	충무회 사무국장 (주)광일식품 전무
발제자	이기철	교육위원회 의원
사회자	최정엽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담당
토론자	김일환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 연구실장
	가나이 (일본인)	호서대학교 교수 온천연구소
	최동국	선문대학교 교수 아산학 강좌
	이병용	온양관광호텔 관리본부장
	유선종	아산시 문화관광과장



황실온천 온양행궁 어떻게 해야 하나? “조선시대 임금님들 휴양지 ‘온양행궁’ 어떻게 될까?”

지역현안인 ‘온양행궁 복원’을 위해
주민 대상 의정토론회 개최

충청남도의회는 9월 10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황실온천 온양행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아산 관내 각급 기관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아산시 출신 이기철 충남도의원(새누리당)은 1970년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혼관광지인 온양관광호텔 안에는 조선의 왕실온천인 ‘온양행궁’과 관련된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조선왕조를 빛낸 위인들이 충청도 땅에서 이룬 업적과 그들의 유적들은 리더를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세종대왕 등 임금님들의 휴양지인 ‘온양행궁’을 복원하거나 재현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철 의원(아산)은 주제 발표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신시설과 질 좋은 서비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온천관광지들이 전국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70~80년대에 온천관광의 선두주자였던 온양은 관광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온양행궁을 복원하거나 부여백제역사재현단지의 사례처럼 재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학교통일교육 개선을 위해 의원연구모임 발 벗고 나서”

– 통일교육 시범학교 현장 찾아 학생 통일교육 실태 파악 –

충청남도의회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서형달 의원)은 9월 11일 충청남도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인 보령 대관초등학교를 찾아 협의회를 갖고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 현 실태를 확인한 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2012년도부터 2년간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관초등학교의 통일교육 현황을 보고 받고, 통일교육에 대한 교과목 편성과 시수 운영,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학생들의 흥미가 어떠한지, 담당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지 등 일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통일외식 신장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학교홈페이지에 통일관련 배너를 개설하고 통일교육 자료와 북한 사회 알리기 동영상 자료 등을 탑재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연구모임 대표 **서형달 의원(서천)**은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연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일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새터민 강사 등을 초청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등 교과활동을 통해 통일의식을 신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연구모임 |

| 구성원(10명) |

구분	성명	소속
대표	서형달	교육위원회 의원
간사	장용환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사무국장
회원	김석곤	교육위원회 의원
	이진환	교육위원회 의원
	김홍열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이종화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김성윤	단국대 교수
	류창기	호서대 초빙교수
	서문동	남서울대 교수
	강해자	충남교육청 장학사



포토 의정

2013
07~09



07월
12일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서형달 의원)이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여 천안함 견학 및 안보현장 중심의 통일교육 개선방안을 벤치마킹 하였다.

07월
12일

충청남도의회는 아주자동차 대학교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회 충청남도 장애인 풋살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07월
18일

충남도청에서 과학벨트 수정안과 관련 과학벨트의 원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07월
19일

충청남도의회 이준우 의장(우)이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여 한국농어촌 공사 박재순 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07월
22일

공주장례식장을 찾아 태안 무허가 해병대 캠프 사고 희생자들을 조문하였다.



07월
2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 폐기촉구 및 원안 사수 결의대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08월
01일

아산시 곡교천시민체육공원에서 제13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했다.



08월
07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보치아팀 창단식 참석했다.



08월
15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했다.

포토 의정

2013
07~09



08월
15일

충청남도의회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회간 우호협정체결했다.

08월
20일

2013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을지연습 진행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08월
30일

이순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3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했다.





09월 04일 덕산 리스캐슬에서 개최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09월 05일 충청남도의회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 논산천둔치공원에서 개최된 제51회 논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했다.



09월 05일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부의장이 라뽀므웨딩홀에서 개최된 예산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했다.



09월 05일 충청남도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항 북측도류제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예정지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09월 07일 신정호관광단지에서 개최된 제19회 아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했다.



09월 12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대상무위 차광철 주임 등 대표단이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했다.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궁금했어요

2013년 7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충청남도의회 청사를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도의회 청사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논산시 광석면 우강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보령시 천북면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서산시 고북면 남정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서산시 대산읍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청양군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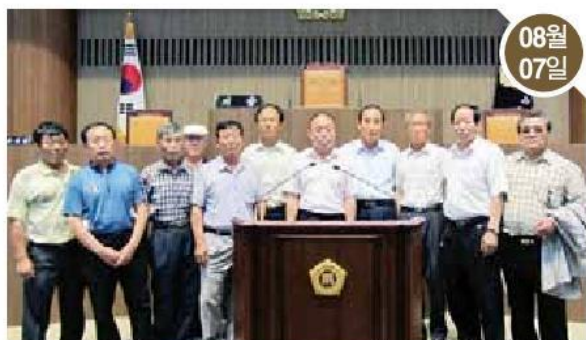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당진시 당진읍상가번영회원 의회 방문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노인회 의회청사 방문



보령향교 관계자 의회청사 방문



충청남도 명예감사관 의회청사 방문



이진구 전 국회의원 의회청사 방문



홍성군 은하면 노인회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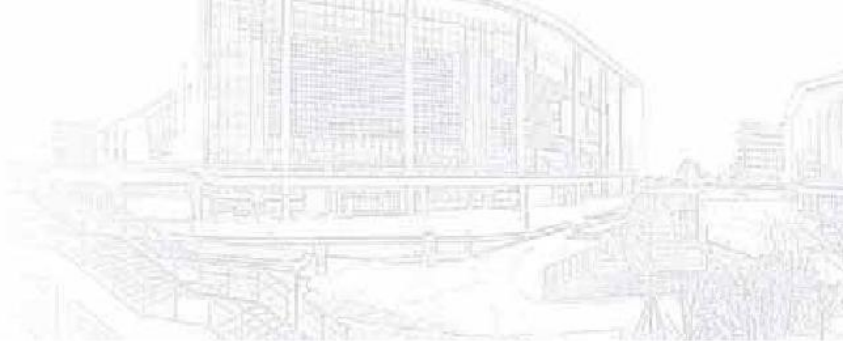
태안군 근흥면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당진시 순성노인대학생 일행 의회청사 방문



논산시 취암동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충남진폐협회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예산군 품목별작목반연합회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서산시 운산면 생강작목반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보령시 블루베리연구회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보령시 우정회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당진시 순성면 봉소2리 거문들팜스테이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보령시 청소산악회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논산시 리통장연합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아산시 노인복지회관 관계자 일행 의회청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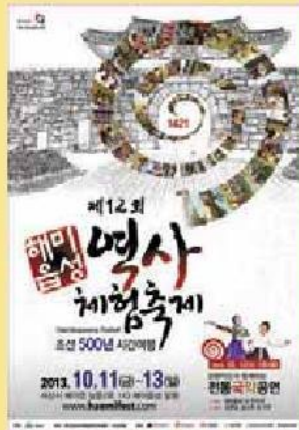


논산시 연무읍 농촌지도자 회원일행 의회청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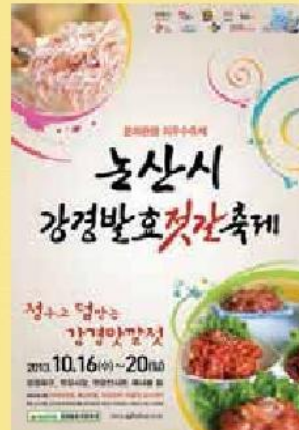
10월에 열리는 즐거운 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10.1~6
천안삼거리공원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10.11~13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해미읍성 일원



강경발효젓갈축제 10.16~20
강경포구, 젓갈시장, 젓갈전시관, 옥녀봉



지상군페스티벌 10.2~6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 / 계룡시 일원

충남도청 문예회관 공연안내



+ 정열의 스페인 플라멩코

- 시 간 | 2013. 10. 10(목) 오후 7시
- 장 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 관람료 |
R석 10,000원, S석 5,000원, A석(2층) 3,000원 (예매수수료 포함)
- 예매기간 | 2103. 09. 30(09:00)~10. 08(17:00)
티켓 예매는 '문화장터 홈페이지 (<http://문화장터.kr>)에서 가능합니다.
- 공연문의 |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Tel. 041)635-3817

의회사무처 소식

의정자문위원 44명 위촉

- ❖ 충청남도의회사무처(처장 구삼회)는 8. 26.(월) 오전 10시 도의회 1층 의원회의실에서 이준우 의장을 비롯한 김기영·송덕빈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기능 강화 및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전체회의에 이어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 전체회의에 앞서 의회운영,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수산 경제, 건설소방, 교육 등 6개 분과위원회 4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총 44명 중 교수 14명, 전직공무원(교사 포함) 16명, 연구원 6명, 자영업자 등 8명으로 구성, 전문성과 여론수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 ❖ 이준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의정자문위원들의 지식과 고견을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성공적인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도민 불편 사항 제보를 받습니다”



도민제보 요령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기간 : 10.1 ~ 10.31(1개월간)



충청남도의회
council.chungnam.go.kr

모바일세상 속 충청남도의회

+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가 새단장을 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의회 모바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생중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PC버전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산뜻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만나는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세요.

+ 접속방법

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council.chungnam.go.kr) 입력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설치) ② 안드로이드 마켓에 “충청남도의회” 검색 후 앱 설치 ③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의회” 검색하여 앱 설치(내폰으로 보내기) ④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충청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소개



의장인사말, 의회구성 및 조직,
전화번호, 찾아오시는 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입법예고,
위원회활동



연간회기일정 및
일자별 회의일정



현역의원 및
역대의원 정보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진자료



업무보고, 연구모임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
의회소식지



의안소개, 검색, 통계정보



회의록 열람



의회 회의상황을 실시간
LIVE 및 녹화영상 중계
의회소식지



의원5분발언, 도정질문
등 홍보영상 VOD서비스



의회에 바라는
사항 등록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를 클릭하세요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